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제주 화재 진화' 퀵플렉서 조명 "아이들과 시간 소중해 주 3일 새벽배송, 자랑스러운 아빠될 것"

2026. 4. 7.

김영웅 CLS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지난 1월 27일 오후 7시 제주시 CLS 제주1캠프에서 우성식씨에게 감사패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 **쿠팡 일상 속 영웅 '의인 시리즈', 제주 새벽 화재 진화 퀵플렉서 영상 공개**
- **두 아이 아빠 우성식씨 "낮에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위해 새벽배송, 주 3일 배송 만족"**
- **아파트 주민, 제주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감사의 뜻 전해 "자랑스러운 아빠될 것"**

2026. 04. 07. 서울 - 쿠팡이 평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일상을 책임지는 한편, 위급 상황에 이웃의 안전까지 지켜낸 의인의 이야기를 담은 '의인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첫번째 주인공은 지난 1월 새벽 배송 중 화재를 초기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 막은 제주 천상로지스틱스 소속 퀵플렉서 우성식씨다. 영상에는 우씨의 활약과 일상, 지역 주민들의 감사 메시지 등이 담겼다.

우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4시42분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배송 중 배송 동선이 아닌 지하 1층에서 작은 연기가 나는 것을 지나치지 않고 초기 진화 후 119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우씨의 신속한 대응과 신고 덕분에 40여 가구 주민들은 인명과 재산 피해 없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두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우씨는 "낮에 아이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야간 배송을 선택했다"며 "주 3회 새벽배송하고 있는데 야간에 배송하면 차도 안 막혀 편하고 벌이도 괜찮아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아파트 주민 대표 등 5명이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와 함께 깜짝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도 담겼다. 주민들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신 덕분에 저희 아파트 주민은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시도 우씨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 2월 2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우성식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에 앞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도 1월 27일 제주시 CLS 제주1캠프에서 우씨에게 감사패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우씨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주의 밤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준 따뜻한 의인들이 많다”며 “의인들은 너무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쿠팡은 앞으로도 이들의 헌신을 조명해 ‘일상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